



# 전북도,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이달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수입 증가 따른 가격 하락 보전 FTA 발효일 이전 생산자 대상

전북도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염소고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대해 피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조사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장정철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정성영 신임 사무처장 부임

### 완주 출신으로 주요 당직 역임 21대 대선 중앙당 전략기획국장



하는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인 유장형 전 사무처장은 중앙당 노동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겼다.

/서울=김영목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정성영(58) 중앙당 공보국장이 지난 1일 임명됐다.

정 사무처장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민주연합청년동맹회 중앙회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 중앙당 전략기획국장으로 대선 승리를 뒷받침

## 윤준병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 법인·단체 기부 참여 허용 추진 주민참여예산 연계 근거 마련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 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대했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개인으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를 타 지역의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해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주민 복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부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법인)과 단체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 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선정된 주민복지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출

### 기획행정 운영선 등 5명 확정 농업복지 등 5개 상임위 구성 임기 2028년 6월까지 2년

전북도의회는 2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기획행정 운영선(정읍2) 의원, 농업복지 환경위원회에 권오안(완주2) 의원,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 김동구(군산2) 의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 김성수(고창1) 의원, 교육위원회에 전용태(진안) 의원이다.

운영선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없는 도정은 바로 설 수 없



염영선 도의원

권오안 도의원



김동구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전용태 도의원

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판적 견제와 생산적 협력, 도의회의 품격과 가치, 자존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권오안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농문화안전소방위원장에 김성수(고창1) 의원, 교육위원회에 전용태(진안) 의원이다.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없는 도정은 바로 설 수 없

조했다.

김동구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새만금 미래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며 "이 기회를 전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분야 업무는 도민

의 삶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교육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는 만큼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있는 가장 단단한 기교 역할을 하겠다"며 "전북 교육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상생과 협치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협력 강화

### 업무관계자 워크숍 개최 경찰·지원기관 60여명 참석 피해자 보호·대응 역량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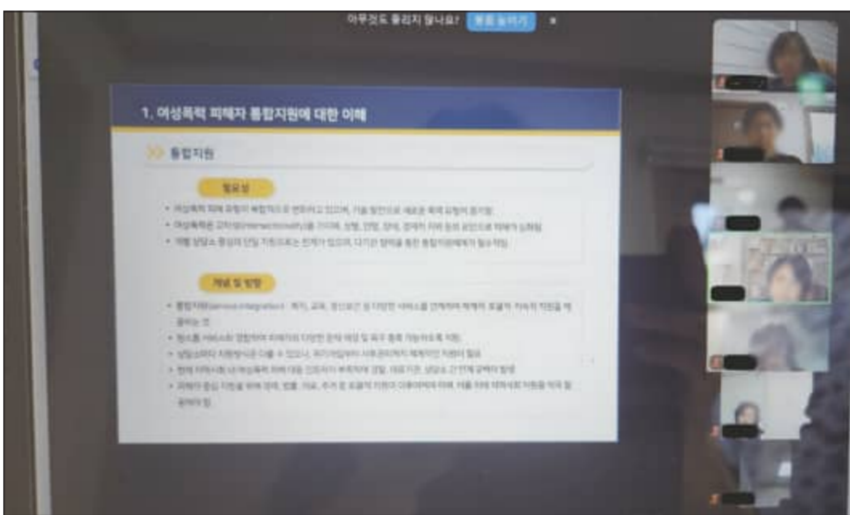
전북도는 2일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폭력방지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경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지원 방향, 현장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왔다.

또 그룹토론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중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진=1366전북센터>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실무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가 반복되거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

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와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 연계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사고 방지를 도와주는 도로 위의 인내지 고속도로 킬리 주행 유도신



파란색 유도신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무리해서 끼어 들기 금지

주황색 유도신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초록색 유도신

휴게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내  
도로 시설 운영 방향 유도

분홍색 유도신

갈림길이나 IC/JC 구간  
운행 방향 유도

# 전주시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 3일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전주시의회는 2일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완료하고 원구설 과정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위원회 의원으로 김윤철, 양영환, 최명철, 최영신, 김윤수, 최명권, 김수민, 이수진 등 8명의 의원을 확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도문, 조우영,

김정명, 채영병, 경현철, 윤해정, 최한별, 신인철, 정승인 의원 등 9명이 역할을 맡았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채민석, 최용철, 장병의, 진예찬, 김성규, 이성국, 최지은, 신동이, 유시선 등 9명의 의원이 배정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남숙, 김동현, 김현덕, 전윤미, 홍대규, 최서연, 은영표, 김인철, 신유정 등 9명의 의원이 활동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 8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배정 의원은 윤해정, 김수민, 이수진, 정승인, 조우영, 최용철, 채민석, 홍대규, 이남숙 의원이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앞두고 전날 오후, 신임 최주만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속에 더불어민주당 김성규 원내대표와 혁신진보시민연대 경현철 원내대표가 만나 교섭단체간의 협력 관계를 조율했다. 특히 최 의장과 김성규, 경현철 원내

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각 의원의 효율적인 위원회 배정이 먼저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별로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각종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치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어 3일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한다. /정혜민 기자

## '2026년 전주시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2026년 전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와 수돗물 이용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리플릿 형태로 발간돼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다. 품질보고서에는 △최근 1년 동안(2025년)의 수돗물의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안심확인제(무요수질검사) △삼합물 공급 현대화사업 등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주시의 노력이 담겨 있다. 시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주시 수돗물 생산과정 및 공급과정을 안내하고, 수돗물 관련 Q&A를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청정지역 용담호(원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 고산정수장에서 정수해 생산된 수돗물을 전주시 내 배수지로 받아 각 가정 및 사업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항목보다 한층 강화된 61개 항목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 1년(2025년) 동안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월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민 안심 먹는물 기반 마련

## 노후 상수관로 정비하는 맑은물 공급사업 지속 전개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물 관리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도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의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수도 시설에 대한 확충·정비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도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엔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은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와 제6조(물수요

관리시행계획), 제74조(기술진단)에 따른 법정 사무로,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28억 원을 투입해 3종류의 용역을 통합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수도정비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장애 인구조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방침의 정합성을 이루는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신동 갈나무골 재개발 등 25개 개발 사업에 대한 물 소

요량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은 1인당 적정 물 사용 목표 설정 및, 물 절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는 △건축 허가 시 절수 기기 보급 유도 △빗물 재이용 확충 등에 관한 실천 계획을 담고 있다. 마지막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펌프장 등 시설물의 기능과 상수관망의 수량, 수압, 수질, 물리적 안정성 등을 평가해 노후 상수관 교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대표사업은 노후관을 정비하는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시

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92억 원을 투입해 776km의 노후 관로를 정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공사의 경우 총 215억 원을 투입해 35km의 관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는 내년 상반기 중 4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배수지 10개소와 수도관 3065km, 계량기 24만6920개를 통해 하루 평균 23만8000톤의 먹는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 전북중소기업 3분기육성자금 순차적 접수

## 총 440억원 규모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기업 성장 기대

전북중소기업 2026년 3분기 육성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총 440억원 규모 3분기 육성자금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지원에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3분기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순차적 접수가 시작된다. 육성자금 유형별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육성자금 신청대상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공장이나 부지 매입, 기계설비 구매 등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협약금리 4.35% 중 전북도가 2.18%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고 기업 부담 금리는 2.17%이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대상에는 기업당 5억원에서 7억원 한도가 지원된다. 은행이 설정한 대출금리에서 전북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2%~3%를 제외한 금리만을 기업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도내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협약금리 4.35%에 이차보전 3.18%가 지원되며 기업은 1.17%의 이차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금별 신청 일정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경영안정자금'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관련해 접수는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분기별 자금 미소진 시 분기 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가 접수가 진행되며 분기별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융자 지원이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및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공고문을 통하면 되고 세부사항 관련 문은 전북도 기업예로해소과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육성자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위한 기업 경제대책에 속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전주천 등 취약지역 안전시설 점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물놀이객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433건, 2024년 373건, 2025년 325건)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총 1,1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름철(6-8월) 발생한 사고는 536건으로 전체의 약 47.4%를 차지해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수난사고 위험(침수)지역 발굴 및 지속 관리 △하천 등

안전시설물 점검·보강 △민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수난구조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 대응훈련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천 등 수난사고 빈발지역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인명구조 장비함과 수난구조 장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반복적인 구조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급류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대병원 문새나간호사, 중환자 임종간호 연구 학술지 게재

### 중환자실 간호사 임종간호 수행 영향요인 규명 환자중심임종간호질향상근거마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진료행정과 신속대응팀 문새나 간호사(사신)의 연구 논문이 한국경제학술지(KCI)인 'KJHP(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게재된 논문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 역할인식, 간호 스트레스가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환자실 간호 현장에서 연명의료 지식과 역할 인식,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가 임종 간호 수행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심층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연명의료 관련 지식과 역할 인식은 임종 간호 수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간호 스트레스 또한 간호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돌봄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에서 간호사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원 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 중심의 보다 질 높은 임종간호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새나 간호사는 "임종간호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간호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더욱 의미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문새나 간호사가 중환자실 근무 당시 수행한 석사학위 연구를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킨 연구 성과로, 최근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정착과 함께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임종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의료 환경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인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에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백지현 교수, 강정희 교수, 김혜영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진의 연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도민 15명 중 1명 소방안전교육 받았다”

## 전북소방교육 만족도 평균 98.78점 강사내용추천의향 모두 높은 평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6년 상반기 도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결과 총 11만6732명이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했다. 이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관할 인구 172만4856명 대비 6.77% 수준으로, 도민 약 15명 중 1명이 올해 상반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셈이다. 지역별 교육인원은 전주완산 1만8,756명, 전주덕진 1만7,077명, 익산 1만6,605명, 군산 1만5,521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대비 달성률은 장수 17.63%, 무주 13.52%, 임실 12.22%, 남원 11.85%, 부안 11.82% 순으로 나타나 군 단위 지역에서도 교육 참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도 중점 추



진됐다. 상반기 취약계층 교육인원은 2만5,547명으로, 전체 교육인원의 21.9%를 차지했다. 취약계층 인구 66만858명 대비 교육 달성률은 3.87%로 집계됐다. 취약계층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거나 안전정보 접근성이 낮은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119신고요령,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실생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혜민 기자

교육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소방안전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98.78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강사 99.32점, 교육 내용 98.98점, 추천의향 98.98점, 강의 기법 98.31점, 교육 실효성 98.31점을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높은 만족도에 대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소방안전교육과장은 "소방안전교육은 재난이 발생한 뒤의 대응보다 한발 앞선 가장 확실한 예방활동"이라며 "도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 세계 135개국 기독교 의료인 1200명 제주에 모인다”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은 본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이 오는 2026년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 기독교의료지과학회(ICMDA) 세계 총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돼 대회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세계기독교의사치과의사협회(ICMDA) 196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5개국 80여 명의 대표단으로 시작된 이래 성(사회)와 KCMF(한국노기회)가 공동 주

최하는 이번 제18회 세계 총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개최된다. ICMDA 세계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전 세계 기독교 의료 및 치료 전문가들의 최대 축제다. 196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5개국 80여 명의 대표단으로 시작된 이래 성(사회)와 KCMF(한국노기회)가 공동 주

10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기독교의사, 치과의사, 의·치대생 및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메인 주제는 "삼치 임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Building God's kingdom amongst the broken)"로 아시아 58장 12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마 5:4) △불의에 시달리는 자(마 5:6) △분쟁으로 고통받는 자(마 5:9)

들과 '소통의 다리'를 놓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며, 삼치 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정의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뜻을 모을 예정이다. 대회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성경 강해(Excellent Bible teaching), 분야별 사전 컨퍼런스(Preconference streams), 그리고 차세대 의료 리더를 위한 세계 학생 컨퍼런스(World Student Conference)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정혜민 기자

# 한중관 이사장 불법중개인 개입 실전적 차단

## 보증중개인유입 제3자보증신청개입 대출서류조작 확인 시 금융제재 가능

최근 국내·외 상황전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 대출 중개인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컨설팅업체 사칭한 계약 체결 △수수료 선지급 요구 후 반환 거절 △약점 노린 허위 서류 작성 이후 대가 요구 등의 보증신청 개입이 난무해 지는 추세다.

이에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특단의 예방책을 꺼내 들었다.

관련해 한 이사장은 7월 '불법 보증중개인 예방 집중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한 이사장의 보증중개인 예방은 △불법 보증중개인 유입 사전 차단 △제3자 보증신청 개입 성공보수 요구 △대출서류 조작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예방 차단방책이기도 하다.

관련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앞서 △홈페이지 △SNS △고객 알람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보증중개인 근절 홍보콘텐츠를 배포해 왔다.

앞으로도 재단은 도내 14개 전 시·군 및 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사례 전파, 불법 현수막 신고 접수 등 불법 중개인 적발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한 이사장은 예방대책을 강조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통한 보증신청이 확인될 경우, 신청기업에게까지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 시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허위 서류제출 입증 시 신용정보상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돼 추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걱정하며 예방대책을 넘어 도·시민 상공인 등의 사전차단에도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불법 보증 중개인 의심이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전북신용보증

<사진=전북신용보증재단>

재단(1588-3833)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중관 이사장은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단에 직접 문의하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공사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단체상 수상 농어촌지역 태양광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지난 1일 '2026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공사는 사회적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군산·정읍·익산 등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왔다.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협업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임직원 기증물품 1천9백여 점을 전달하는 등 자원순환 나눔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다.

또 공사 용역이나 사업용 물품 발주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화영 사장은 "사회적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제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기청 "전북 중소기업 AX '제조 혁신 기술' 공유

## 장상만 총장 지속가능 성장동력에는 'AX' 필수 강조

2일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AX 세미나는 지난 3월 구성된 '스마트공장 기술공급기업 중심 스마트제조 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 회원사 제조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TP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 회원사 △취업플랫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북중기청장 주재로 지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회원사들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 DX(디지털 전환)·AX(인공지능 전환)에서 겪는 전문인력 부족과 고비용 문제를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북중기청과 전북TP는

유관기관 연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AX(인공지능 전환) 간담회 자리에는 국내 최초 B2B AI 분야 코스타드 상사인 (주)심플랫폼 전문가가 초청돼 '제조 혁신 기술' 등이 공유되며 의미가 더해졌다.

특히 간담회는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이 AX 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직면하는 '데이터 부재', '전문가 부재', '높은 초기 비용'이라는 3대 걸림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형 AI 도입 전략을

제시하는 등 협의회 회원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한편 전북중기청과 전북TP는 지역 중소기업들 AX 전환 위한 협의회 회원사 간 정기적인 기술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최신 기술 소개 등을 통해 기술역량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 AX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지역인재 비중 70% 이상 채용

신입행원 20명 현장 배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 제65기 신입행원 정식 임용식이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나해 11월 입학한 신입행원 20명은 2개월간의 직무연수와 6개월간의 수습 과정을 거쳐 정식 임용됐다. 이들은 수습기간 동안 본부와 영업점 등 다양한 현장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은행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제 65기 신입행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활용 역량과 디지털 금융 직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미래 금융을 선도할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 날 임용식에는 박춘원 은행장과 정원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전북은행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행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신입행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AI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감각과 금융 전문성을 갖춰 고객의 금융 경험을 혁신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행 일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과 지역 사회의 성장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번 신입행원 가운데 70%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우수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우리 쌀 경쟁력 강화 '장립종 벼 혁신 프로젝트' 공동연수

## 농진청-한국육종학회 공동연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늘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육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구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부 기관, 대학, 산업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주요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는 흔히 '인디카'로 불리며 동남

아 등지에서 주로 먹는 길쭉하고 찰기 적은 쌀 품종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중장기 연구 사업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대학, 산업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공동으로 참여해 육종, 재배 기술, 육종 기초, 국제 공동 연구 4가지 핵심 분야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2년 차를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장립종 프로젝트 사업 개요 및 목적(농촌진흥청 강신구 연구사) △장립종 벼 수출 및 내수 산업화 전략 및 목표(건국대 이주현 교수) △케이(K)-인디카 장립종 벼 품종 개발 및 육종전략(국립식량과학원 조수민 연구사) 등 총 7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들은 세계적인 장립종 쌀 품종인 인도의 '바스마티'와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및 육종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장립종 벼 재배 기술, 병해충과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

<사진=농진청>

우수 유전자원 도입 전략과 장립종 쌀의 할당조절 효과 등 건강 기능성 연구 결과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 라오스 근로자 일시금 지급 길 열어

라오스 사회보장청과 협력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 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라오스 연금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외자 역시 최소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라오스 국적자는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농어구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와 달리 협정을 맺고 있지 않거나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다.

2024년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청 협의체나 체류자격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응성 인정' 방식을 전격 채택해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농어가 현장에서 팔려야 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농어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디자인센터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선정

고창군 지역순환경제 모델 본격

(재)전북TP 부설기관 전북디자인센터(이하 전북디자인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특화자원 활용한 생활인구 소비 전환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은 지역 내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특산물과 체험·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실증하는 사업이다.

선정에 총 4억3천만원(국비 3억원, 지방비 1억3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함께 지역 대표 특화자원인 고창 고구마를 중심으로, 생산-가공-브랜드-유통-체험·관광이 연결되는 협업형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은 고구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 고도화,

지역 내 판매·체험 거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확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사업으로 기존 '고창푸드' 공동브랜드를 제품·패키지·촉제·체험 접점에 적용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창 고구마를 전국 소비자가 찾는 대표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과 관광,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고창형 로컬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이번 사업에서 고창 G-푸드 기반 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고창푸드' 공동브랜드 사업 기획 및 지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브랜드 및 패키지 활용체계 고도화, 협업모델 기획, 실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과관리 및 확산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디자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정소민 기자

## 호남제일신협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전액' 환급

공로 인정 완주경찰서 감사장 수여

호남제일신협(이사장 이모) 창구 직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이사장, 전무를 비롯한 전 임직원의 끈질긴 설득 노력을 통해 '주식·금융 리딩방'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1억 원) 전액을 무사히 되찾아 환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아침, 조합원 A씨는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르게 이른 시간부터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금융 앱이 잘 실행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이를 돕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유00 직원은 화면에서 신종 사기 범죄 계정으로 의심되는 '밴드 리딩방' 대화창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유00 직원이 금융 사기 가능성을 설명하려 하자, 사기범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A씨는 황급히 신협을 빠져나갔다.

조합원의 안위와 자산 유출을 우려한 유00 직원은 영업 마감 전까지 자산 보호를 위해 A씨의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A씨가 퇴점 후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를 송금한 의심 정황을 최종 포착했다.

유00 직원은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가 아님을 직감하고, 즉시 신협중앙회 상시감시 모니터링실에 이상 거래 여부 검토를 의뢰했고, 신종 사기 수법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협중앙회와 호남제일신협의 신속한 공조로 해당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 정지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지급 정지 사실을 알고 다시 신협을 찾은 조합원 A씨는 여전히 사기 피해를 의심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거래라며 걱정만 해오던 해를 말했

다. 이에 유00 직원뿐만 아니라 이모 이사장과 최해정 전무를 비롯한 호남제일신협의 전 임직원이 직접 발 벗고 나서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호남제일신협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최신 금융 사기 수법을 알리는 창구 안내를 강화하고, 시니어 및 금융 취약 계층 조합원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호남제일신협은 전북 완주 지역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교육 대전환 이룰 것”

## 기초학력·진로 플랫폼 강화 및 산업 연계 트랙형 모델 구축 제시

제20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식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천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학교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대전환을 선포하며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교육공동체와 도민, 유관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천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 불신 등 전북 교육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짚어내며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길을 찾는 살아있는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새로운 비전인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7대 핵심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책임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북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학력 신장 부문에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학생진학진로교육원 설립’을 당대 축으로 설정했다.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만들어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조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면서, AI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 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화를 강조하며 전북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과 연계된 융합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및 대학,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습-현장-채용’ 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트랙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유학 확대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 통해 소멸 위기의 농어촌 학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사 및 행정 혁신안으로는 ‘교육장 지역추천제’와 ‘합의제 감사관계’ 도입을 공식화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 과정에 지역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최종 인사권자로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찰 체계와 특별감찰위원회를 가동해 전북 교육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온돌네돌봄책임제, 아침밥차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도민 여러분의 벼가 동반자로 늘 교육 현장에서 호흡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전북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최성민 기자

## 군산시, 역사체험형 콘텐츠 정식 운영

### 국가유산서 즐기는 방탈출

군산시는 오늘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 역사체험형 콘텐츠 ‘식량영단의 밀서’를 정식 오픈하고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근대건축물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체험하는 몰입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새로운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실제 피드백을 반영해 콘텐츠 난이도를 조정하고 현장 동선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보완하는 등 콘텐츠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현장에는 전문 해설사 2명이 상주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식 운영되는 ‘식량영단의 밀서’는 참가자들이 근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체험형 콘텐츠 ‘식량영단의 밀서’를 정식 오픈하고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별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시간은 회차당 약 40분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콘텐츠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군산의 근대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보존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고창 한 여름밤 콘서트’ 9일 개최

고창군이 오는 9일 저녁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에서 데이브레이크, 너드커넥션이 출연한 ‘고창 한 여름밤 콘서트’를 연다.

데이브레이크는 ‘좋다’, ‘들었다 놔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국민 밴드다. 청량하면서도 경쾌한 감성은 물론 노련한 무대 매너로 현장 분위기를 최고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너드커넥션은 ‘좋은 밤, 좋은 꿈’, ‘우리 노래가 될까’ 등의 노래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밴드다. 흡입력 있는 보컬과 서정적이면서도 단단한 락 사운드로 한 여름밤의 낭만적인 감성을 더 깊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고창군이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와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가 후원한다.

공연료는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 익산시 ‘전국육상경기대회’ 열전

### 4~8일 2000여 명 참가 익산시청 육상팀 선전 기대

전국 육상 유망주와 실업 선수들이 익산에 모여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익산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백제왕도 익산 2026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이 주관한

다. 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선수단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달은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미국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청 육상팀 선수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거리 종목에는 이우민·조현욱·김가경·오혜원 선수가 출전

하고, 필드 종목에서는 포환던지기 이성빈 선수, 해머던지기 장영민·김태희 선수, 창던지기 김민지 선수가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메달 사냥에 나선다.

시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점검과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회 기간 경보 경기가 열리는 오는 5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신재생 자원센터 앞 삼거리부터 원팔봉사거리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시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해당 시간대 교통안내에 따라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청 육상팀을 비롯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며 “경보 경기로 인한 교통 통행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현대, 공격진 보강... 기티스 임대 영입

### 부상 티아고 대체

전북현대 모터스FC가 제주SK에서 활약한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기티스 파울라우스카스(Gytis Paulauskas/27세/F/W/196cm/86kg)를 6개월 임대로 영입하며 공격진 보강에 나섰다.

196cm의 뛰어난 신장을 갖춘 기티스는 제공권 장악 능력과 포스트 플레이를 강점으로 하는 최전방 공격수다.

2020년 리투아니아 A대표팀으로 발탁된 기티스는 리투아니아 국가대표로 꾸준히 활약해왔다.

특히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유럽 리그를 경험하며

다양한 축구 스타일을 익혔다. 뛰어난 피지컬과 성실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북의 공격 전술에 다양성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은 기티스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측면 자원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최근 주축 공격수 티아고가 부상으로 인해 잠시 전력에서 이탈함에 따라 최전방 공백을 최소화하고, 후반기 리그 반등과 코리아컵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등 뻣뻣한 일정을 병행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티스를 선택했다.

/장정철 기자

## 도문화관광재단, 학부모·학생 대상 문화예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학생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이 보유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학부모지원센터의 교육 네트워크를 연계해, 학부모와 학생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부모·학생 동반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상호 협력 △교육 정보 공유 및 통합 홍보 체계 구축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생 협력

△시설 및 인프라 상호 개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학부모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자녀와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법

**1 사용 전 주의사항**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삽머를 정비하거나 보수 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한다.



**2 어린이 감전 예방**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생활화하고, 멀티탭이나 전선 등은 가급적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한다.

**3 전기 시설물 주의**  
장마나 호우로 비가 오는 날에는 거리의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포함한 야간 살피기, 입건판 등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감전재해란?

사람이 전류에 접촉해 신체에 전기충격응 받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장애를 초래할수있으며 근육수축이나 의식상실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 ‘맛있는 도시 익산’ 미식 100선 홍보 본격화

익산시가 지역 대표 맛집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맛있는 도시 익산’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외식업 활성화와 미식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미식 100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시리즈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이 여행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맛집 탐색이 일상화됨에 따라 익산의 우수한 음식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익산 미식문화여행 가이드 수록업소와 향토음식점, 대물림맛집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익산미식 100선’을 구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릴스 및 숏폼 영상, #익산맛집 해시태그 챌린지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테마형 시리즈도 함께 운영한다. 콘텐츠는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게시할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익산시 미식위생과 공식 블로그 ‘맛퐁이’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만의 다양한 맛과 이야기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찾고 다시 방문하는 미식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오션팔레트 임시개장 앞두고 몽돌해변 환경정비

군산시는 오션팔레트 임시개장을 하루 앞둔 2일 무너진 오션팔레트 전면 몽돌해변 일원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관광객 맛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여름철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항만해양과와 어업정책과, 육도면, 탐방지원센터 직원 등 50여 명은 몽돌해변과 해안가에 유입된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목재 등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처리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해변 조성에 힘을 모았다.

오션팔레트는 무너짐에 조성된 서해안권 최대 규모인 해양레저 복합단지, 인공파도풀과 인피니티풀, 인공서핑장,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해양레저·휴양시설을 갖춘 체류형 관광시설이다.

군산시는 지난 6월 26일 임시운영을 통해 주요 시설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으며, 이번 환경정비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3일부터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보완한 뒤 10일 정식 개장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지방세 납부 기한 7일까지 추가 연장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 장애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시는 당초 오늘까지였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나흘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으로 인해 전국적인 지방세 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마련됐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납기 연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지방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오는 7일까지 연장된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면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시스템을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며 “납기 연장 안내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제10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첫발’

## “신뢰받는 열린 의회” 다짐… 서동수 의장 송미숙 부의장 선출

제10대 군산시의회가 지난 1일 의장·부의장 선출과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서동수 의원(군산시 가 선거구), 부의장에 송미숙 의원(군산시 마 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10대 군산시의회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다선인 6선 서동수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서동수 의원이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 21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송미숙 의원이 찬성 22표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특히, 의원 배치 패용식에서는 시민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서동수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성원과 믿음은 의회를 더욱 성숙하게 잘 이끌어 달라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송미숙 부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장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과 지혜를 모아 더욱 성숙하고 생산적인 자치입법기관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했다.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은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개식 및 국민의례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서동수 의장의 선창에 따라 전체 의원이 의원 선서한 데 이어, 송미숙 부의장이 대표로 정령 서약을 낭독해 전 의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음으로 최연소 의원인 박다혜 의원이 대표로 정령 서약을 낭독해 전 의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의원 배치 패용식에서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에게 가족지인 대표가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함께 되새기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더했다.

서동수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10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현대자동차 투자 및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등 군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희망의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책임 있는 감시로 견제는 물론 군산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구성

“익산 미래 위해 노력할 것”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는 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영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 김미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준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순덕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영미 의회운영위원장은 “3개 위원회의 가교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의장단과의 협의를 상설화하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며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규칙 및 규정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미선 기획행정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산과 행정을 살피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경청과 배려, 원칙 있는 리더십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지혜를 모으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라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순덕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또한 익산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의료원 ‘공공의료’ 혁신 가속화

군산의료원은 지난 1일 본관 1층 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주년 개원기념식 및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 13명과 우수 직원 14명에게 도지사 및 의료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전 임직원이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개원 43주년을 기점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진료 및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복강경수술기 등 24종 95대의 의료장비를 선정했으며, 현재 일부 필수 장비는 도입을 완료해 운영 중이고 나머지 장비들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신관으로 주요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본관 내 기존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을 환자 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의료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향후 본관 전체 시설에 대한 단계적 리모델링을 추진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치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원 43주년을 맞는 올해는 장비 현대화와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재택의료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농촌·장애인 주거 안정 지원 2(題)

###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정읍시가 국비 등 17억 6400만원을 확보해 옹동면 매당마을의 낡은 주택과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개선한다.

시는 옹동면 매당리에 자리한 매당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정비, 안전 위생 시설 확충,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보조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11억 8800만원, 지

방비 5억 4000만원, 자부담 7200만원 등 총 사업비 17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당마을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비탈면 보강, 배수로와 마을 안길 정비 등 기초 생활 기반 시설을 고친다.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 주택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이학수 시장은 “낙후되고 위험에 노출됐던 농촌 마을의 정주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행복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착수

정읍시가 이달부터 관내 장애인 1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택 개조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는 418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거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자기 소유의 집은 물론 세를

들어 사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선정된 11가구는 집 안팎의 편의 시설 확충을 원칙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로와 경사로를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벽지나 장판 보수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시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추가로 찾아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지역 가공식품 판로 확대 나서

### ‘팔도밥상 페어’ 참가 홍보 및 바이어 상담

익산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시장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익산시는 2일부터 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팔도밥상 페어’에 참가해 지역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린다.

팔도밥상 페어는 전국의 우수 식품기업과 농식품 생산자가 참여하는 식품

박람회로,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다. 시는 조이리브투어리, 딸기팥, 해오담, 마누룻지서동팥 등 지역 가공업체 4곳과 함께 ‘익산시 통합홍보관’을 운영해 제품 판매 및 홍보에 나선다.

부스에서는 △고구마를 활용한 증류주 ‘리19’ △토끼 딸기를 진공 농축해 만든 딸기잼과 딸기청 △구중구포 방식의 흑삼 가공식품 △서동마을과 누룻지를 활용한 마누룻지 과자 등 익산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와 함께 시·시음 행사를 진행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바이어 상담을 통해 신규 유통망 발굴과 판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 지원과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익산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농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입피면 금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입피면 금산마을

은 빈집과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다수 분포해 안전과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노후화된 경로당, 철도로 인한 마을 단절, 협소한 마을 안길로 인한 차량 통행 위험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군산시는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빈집 철거, 집수리 등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로당 리모델링, 담양 및 위험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공용주차장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금산마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금산마을 선정으로 2022년 서수면 신장마을, 2023년 옥산면 외유마을과 서수면 성자마을에 이어 3년 만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다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야외 근로자 쉼터’ 본격 가동

정읍시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야외 공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쉼터 2곳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쉼터는 초산동 도심공원과 칠보물터마 유원지 두 곳에 들어섰다. 공원 청소나 예초 작업 등을 맡은 야외 공공 근로자 총 45명이 주된 이용 대상이다. 이들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휴식을 취해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설 확충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결과다. 시는 확보한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맞춤형

휴식 공간을 완성했다. 시설 내부에는 미세먼지 여과기와 냉난방 설비를 알차게 갖췄다. 특히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달아 전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립형으로 꾸린 점이 돋보인다.

시는 앞으로 기상 악화 시 근로자들의 작업 강도를 조절하고 쉼터에서 충분한 쉬도록 환경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야외공공근로자 쉼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 최정호 익산시장 “시민과 현장 최우선”

익산시 민선 9기 시장이 ‘시민과 현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땀을 흘렸다.

익산시는 최정호 신임 익산시장 취임 후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소통의 날’ 운영계획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장의 1호 결재는 향후 4년간 시장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이번 결재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면 바로 시장의 출발점’이라는 현장 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장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현장 소통의 날을 공식 운영할 계획이다. 최 시장이 직접

읍·면·동의 주요 민원 현장과 대형 사업장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시장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1호 현장 행정의 구체적인 일정도 신속히 확정됐다. 최 시장은 오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직후,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낭산면 산북천 개선복구 사업 현장과 망성면 화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현장을 연이어 전격 방문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시장의 주인은 오직 시민이고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 바로 시장의 출발점”이라며 “수해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매주 발로 뛰어 밭보다 진정성 있는 탐방을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시 “농촌 삶의 질 향상 총력” 2(題)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성과

김제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2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자율계정)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먼저, 2027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금산면 용호리 소용마을과 성덕면 대목리 탄삼마을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8억 원(국비 26.8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시는 2022년부터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번 추가 선정을 포함해 총 8개 마을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선정된 소용마을과 탄삼마을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확충 △노후 주택 정비 및 집집 철거 △마을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6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과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농 정착 위한 귀농교육 시작

김제시가 2일 농업인교육 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김제시 귀농귀촌 심화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교육생 40여명과 함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힘찬 결음을 내디뎠다.

이번 교육은 기본교육을 이수했거나 귀농에 대한 기초 이해를 갖춘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역량과 농업경영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목별 실무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8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경영 및 마케팅, 세무법률 교육, 현장견학 등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심화교육은 귀농 준비를 넘어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한, 교육 이수 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돼 교육생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사랑상품권 운영 플랫폼 전환”

### ‘조폐공사 착’ 앱으로 변경

고창군이 2일 오전 9시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상품권 운영 플랫폼을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전환에 따라 기존 ‘고창사랑페이’ 앱은 ‘조폐공사 착(Chak)’ 앱으로 변경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착(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창사랑카드와 보유 잔액은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관돼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불카드 가운데 본인인증이 되지 않은 일부 카드는 보유 잔액을 모두 사용한 후 신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번 플랫폼 전환으로 이용자는 상품권 구매·충전, 결제, 잔액 조회 등을 ‘착(Chak)’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창군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이 2일 오전 9시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상품권 운영 플랫폼을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전환에 따라 기존 ‘고창사랑페이’ 앱은 ‘조폐공사 착(Chak)’ 앱으로 변경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착(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창사랑카드와 보유 잔액은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관돼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불카드 가운데 본인인증이 되지 않은 일부 카드는 보유 잔액을 모두 사용한 후 신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번 플랫폼 전환으로 이용자는 상품권 구매·충전, 결제, 잔액 조회 등을 ‘착(Chak)’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창군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DH오토리드·DH오토넥스 부안군에 10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일 열린 제47대 부안군수 취임식에서 DH오토리드 이석근 대표이사과 DH오토넥스 김영식 대표이사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고창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강조해 온 DH그룹 이석근 회장의 독려로 이뤄졌으며 두 대표이사가 뜻을 함께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이정권 회장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부안군에 고창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꾸준한 고액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뜻깊은 기부를 실천해 주신 두 대표이사와 지속적으로 부안사랑을 이어오고 계신 이정권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금연구역 일제 점검 실시

부안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이 법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을 알리며 관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 관리 및 계도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법령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과 구체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적 정의 확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금연 구역 내 골연행·액상연행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데 주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시설 및 법적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10만원, 조례에 따른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금연 문화가 군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이 법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을 알리며 관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 관리 및 계도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법령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과 구체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적 정의 확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금연 구역 내 골연행·액상연행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데 주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시설 및 법적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10만원, 조례에 따른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금연 문화가 군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사진=고창군>

## 고창군,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

고창군농업기술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2일 고창청년농업인 구회 낙농종사자를 대상으로 번식 및 분만관리 분야 종합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번식과 분만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번식장애 예방, 분만 전·후관리 요령, 신생 가축 관리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방문을 통한 전문컨설팅을 통해 당면한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종합컨설팅으로 농가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2일 고창청년농업인 구회 낙농종사자를 대상으로 번식 및 분만관리 분야 종합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번식과 분만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번식장애 예방, 분만 전·후관리 요령, 신생 가축 관리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방문을 통한 전문컨설팅을 통해 당면한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종합컨설팅으로 농가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범리로 판단해야”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일 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재검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행정법학회와 법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위원 및 김제수협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개발 방향과 미래 산업구조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는 신규 토지인 만큼 종전 해상경계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해안선과 현실적인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동진 경희대학교 교수도 새만금신항 관할은 항만이라는 특수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기존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범리에 따라 전체 관할구도,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衡量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새만금신항은 오랜 세월 바다를 내어주고 기다려 온 김제시민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감정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과 원칙,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신항이 김제와 전북의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일 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재검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행정법학회와 법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위원 및 김제수협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개발 방향과 미래 산업구조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는 신규 토지인 만큼 종전 해상경계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해안선과 현실적인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동진 경희대학교 교수도 새만금신항 관할은 항만이라는 특수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기존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범리에 따라 전체 관할구도,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신항이 김제와 전북의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제10대 고창군의의회 박성만 의장 선출

## 제324회 임시회 개최 원구성 완료

고창군의의회는 지난 1일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고창군의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박성만 의원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무기명 투표로써 의장에 박성만 의원, 부의장에 조규철 의원, 운영위원장에 진남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이경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박성만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과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고창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철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 내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소수의 의견은 더 세심하게 들어서 의회 안의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이 아니라 고창 발전을 위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남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의회 일정을 협의하는 위원회로서 의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회가 의회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선배 의원으로서 앞장서서 힘쓰겠다”고 했다.

이경신 자치행정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는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창한 말보다는 성실한 실천으로 증명하며, 기본에 충실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은 “군민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라는 뜻을 받들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찾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산·학·관 ‘맞손’

## 교육·취업·정착까지 지자체 협력체계 가동

김제시가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채용 연계를 넘어, 대학의 기술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고용 기반을 결합해 외국인재가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유학생 성장형 정착 모델’을 선보인다.

시는 2일 2층 상황실에서 원광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및 지역기업들과 함께 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산업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교육부터 실제 고용, 그리고 지역특화분야 전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인 원스톱 프로세스로 제공하는 ‘외국인재 맞춤형 고용·정착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는 해외 우수 유학생 모집과 직무 및 한국어 교육 운영을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한다. 고용 주체인 참여기업은 인턴십 운영 및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며 △김제시는 사업 총괄과 지역특화 분야 연계 등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산·학·관 협력이 전국적인 표준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김제에 단단히 뿌리내려 지역경제의 핵심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교육부터 실제 고용, 그리고 지역특화분야 전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인 원스톱 프로세스로 제공하는 ‘외국인재 맞춤형 고용·정착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는 해외 우수 유학생 모집과 직무 및 한국어 교육 운영을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한다. 고용 주체인 참여기업은 인턴십 운영 및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며 △김제시는 사업 총괄과 지역특화 분야 연계 등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산·학·관 협력이 전국적인 표준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김제에 단단히 뿌리내려 지역경제의 핵심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농촌 의료 공백 해소

## 농촌왕진서비스 운영 건강한 기본사회 실현

부안군은 지난 2일 보안면 남부안농협 문화복지센터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농촌왕진서비스’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 등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치과·안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지역농협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의료서비스에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다비치 안경점 등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분야별 의료진이 주민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농촌왕진서비스는 보안면·줄포면·진서면을 시작으로 계획된 7월, 상서면·행안면 8월, 부안읍·동진면·백산면·수산면 8월, 하서면 10월, 변산면·위도면 11월 등 총 6회 운영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촌왕진서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현장 중심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복지 행정을 추진해 건강한 기본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이재난고’ 5점 원본 선배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시대 시장을 주제로 7월 유물 전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고창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이 평생 기록한 ‘이재난고’ 58책 중 5점의 원본을 선보인다.

조선 후기는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상업의 발달로 전국의 장사가 확대되고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진 시기이다.

‘이재난고’에는 당시 시장에서 거래된 물품의 가격과 화폐 사용, 노동자의 품삯 등이 재 황윤석의 경제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삶과 사회경제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보관한 ‘이재난고’ 총 47책은 이재 황윤석의 후손 황병무로부터 기탁받은 자료다.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3년 국가중요과학자료로 등록됐다.

이에 고창군은 ‘이재난고’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국가 지정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 지속적인 번역 자료 축적과 학술 조사 및 학술대회를 추진해 보물 격의 가속화를 더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생활안전망 촘촘히' 2(題)

## 상수도 비상사고 위기대응 합동훈련 진행

완주군은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2026년 상수도 비상사고 위기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완주군을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청,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 전북 시·군 상수도 담당자 등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합동훈련은 지난 2020년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 관리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되

고 있으며, 올해 훈련은 완주군 봉동배수지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비상연계 과정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전개했다.

훈련에서는 사고 발생 인지와 상황 접수를 시작으로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 수준을 결정하고 비상상황실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했다. 또한, 송수관로 긴급 복구와 비상연계관로를 활용한 용수 공급, 단수지역 대응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비상연계관로 운영 과정에서 수질 민원이 발생 한 상황을 가정해 전 과정을 실천처럼 훈련하며 위기 대응 역량과 기관 간 협업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 여름철 청소년 수련시설 합동 안전점검

완주군이 여름철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화에 맞춰 수상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구이면에 위치한 청정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한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완주군청 아동친화과, 체육공원과가 함께 참여해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조망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안전확보가 필수적인 수상활동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점검에서는 기관별 역할에 따라 세부 항목을 확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전문지도자 배치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험 가입 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군 아동친화과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주 등 인근 관광지 체육공원은 △내수면 수상활동 기구와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장류축제, 대만 관광시장 공략

### 대만 여행사 초청 팸투어 진행 전주 연계 체류관광 개발 논의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대만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순창장류축제를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대만 주요 여행사 대표와 상품 기획 담당자 등 30여 명은 강선산군립공원과 강선힐링스파 등 순창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발효문

화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며 상품화 가능성을 살폈다.

특히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열린 '2026 예비글로벌축제 순창장류축제 홍보설명회'에서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과 외국인 참여형 콘텐츠, 발효문화 체험 및 미식관광 자원을 소개했다. 이어 대만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팸투어에 참가한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장류문화와 발효음식, 체험 중심의 관광콘텐츠가 대만 관광객의 여행 수요와 잘 맞는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직접 만들고 맛보는 체험 프로그램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라고 평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10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 전문기관 현장 참여 행정·법률·금융 등 원스톱 상담

완주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의 생활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여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관들이 현장에 배치돼 직접 고충을 듣고 소통한다.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대만법률구조공단은 생활법률을 한 국공도정보공사는 지역·토지 관련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문제를 상담하며 전문성을 더한다.

완주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군청 감사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이달 중 전기저상버스 확대 운행

### 친환경저상버스 5대 추가 도입 2035년 시내버스 전면 전환

남원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남원시는 이번이 추가 도입되는 전기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동반 승객,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됐다.

이전에 추가 도입되는 전기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동반 승객,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됐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군, 훈몽재서 조선 선비문화 체험 교육

### 유학·인성교육 등 3개 과정 이달부터 12월까지 수시 운영

순창군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훈몽재에서 '2026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연중 수시로 운영되며 하반기 과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전문 교육 △훈몽재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비 문화 △훈몽재 교양강좌 등 총 3가지 과정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먼저 '유학전문 교육'은 한문학과 전공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학 및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강생의 수준에 맞춘 깊이 있는 맞춤형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과 단체를 위한 '훈몽재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비문화'는 과거 선비들이 필수 덕목으로 익혔던 육예

계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낮은 차체와 적은 소음·진동 등 쾌적한 탑승감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끼는 '체감형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원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체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연차별로 순차 도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남원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사진=순창군>

(六藝: 예법·음악·말타기·활쏘기·글쓰기·셈하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10인 이상의 가족이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다례, 국악, 승마, 궁궁, 서예, 산가지 체험 등 차별화된 전통 문화를 저렴한 수강료로 체험할 수 있어, 지역 농촌유학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훈몽재 교양강좌'는 훈몽재를 건립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선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중적인 강좌로 운영되며,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 구곡마을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공모 선정

## 19억 확보 정주여건 개선 주민 참여형 계획 높은 평가

순창군 구곡면 구곡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구곡마을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9억 4,4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이를 투입해 노후 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곡마을은 공모 과정에서 '아름다운 선율처럼 조화롭고 안전한 살기 좋은 구곡마을'이라는 참신한 비전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실제로, 주민들이 사



<사진=순창군>

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한 점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 선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순창군이 그동안 축적해 온 탄탄한 행정 역량도 한몫했다. 군은 그동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쌓아왔다. 민선 8기 동안 총 6개 마을이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116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의회 '주민혁신연대' 공식 출범

## 윤여연 의원 등 원내교섭단체 '일당 독점 끊고 투명성 확립'

완주군의회 내 원내교섭단체인 '주민혁신연대'가 지난 1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대표의원 윤여연(조국혁신당), 부대표의원 임귀현(무소속), 대변인 이효진(조국혁신당)으로 구성된 '주민혁신연대'는 이달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원내 구성에서 선출된 선성주 의장과 심부건 부의장, 이진영 의회운영위



윤여연 군의원

원장, 최광호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에 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주민혁신연대'는 이번 원내 구성 과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여연 대표의원은 "오늘 이루어진 원내 구성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가치를 저버린 '깜깜이 밀실 야합' 그 자체였다"며 "다수당이 소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공개로 주요 보직을 독식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주민혁신연대는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아래 운영돼 온 의회 구조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운 독단적 운영을 조려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독점 관행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혁신연대'는 향후 의회 내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립해 밀실 논란의 근절 △일당 독점의 견제자 역할 △정치 혁신 등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윤여연 대표의원은 "이제 완주군의회는 독점과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투명하고 정직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 무형유산 육성 학술대회 개최 전승 기반 강화 방안 모색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무형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함한희)과 함께 국가유산청 '2026년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3일 오후 1시 남원농악전수관에서 '남원 사직단체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남원 사직단체는 조선시대 이래 지방 사직제의 전통을 오랜 기간 이어온 무형유산이다. 땅의 신(社神)과 곡식의 신(稷神)에게 제사를 지내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일제강

점기 사직제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남원에서는 '기곡단체'라는 이름으로 지방 사직의 맥을 지켜왔으며, 광복 이후에는 사직단체라는 명칭을 회복하고 풍년 기원과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은 춘추제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남원 사직단체는 현재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사직단, 무형유산인 제례 실천, 그리고 축문·홀기·장부 등 기록유산이 함께 남아 있는 복합유산이다. 사직단체 관련 기록은 남원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곡식, 풍요를 기원해 온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승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전승 주체의 고령화, 세

대 간 전승 지연, 예산 부족 등으로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직단체와 함께 연행되던 성황제와 여제 등 관련 의례 구성 요소 역시 단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원 사직단체의 역사적 전승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함한희 무형문화유산원장의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남원 사직단체'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오세미나 무형문화유산연구원 연구교수의 '미래무형유산으로서 남원 사직단체의 의미와 가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 신규 지정

완주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 10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가맹점은 한의원, 약국, 음식점 등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업장으로 △뜨레주르삼례농협하나로마트점 △감동한의원 △보은의원 △둔앤둔보쌈족발 △혁신원광한의원 △참좋은한의원 △구인당한의원 △새파란약국 △부부한의원 △고산한의원 총 10곳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배회 어르신 발견 시 임시 보호 신고 등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지역사회 협력 사업장이다.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안심센터 안내 리플릿을 비치해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인식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역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니어클럽, 지역 구술문화 '어르신 자서전'에 담다

남원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6년도 시범 사업으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어르신 자서전 사업'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복지 활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니어클럽은 올해 초 어르신 인생 이야기 자서전 작가 4명을 선발하고 한 달 간의 전문 교육을 마쳤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자서전 주인공이 될 대상자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서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적인 인생 여정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년고도 남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속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을 발굴해 인터뷰를 통해 점차 사라지거나 소멸해 가는 구전 자료의 실체를 자서전에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작가단으로 활동 중인 김용근 작가는 "한 사람의 자서전을 묶어내는 일은 인생 여정의 끄트머리에 맺힌 결구지(結局地)의 열매를 꺼내는 송고한 작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르신들의 인터뷰와 집필에 임하고 있다"며 소회를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문화관광재단 '캠핑+공예' 체류형 관광 가능성 확인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운영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숲의 완공 : 완주공예 캠핑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2026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6)과 연계 운영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숲의 완공 : 우리의 공예가 모여, 비로소 숲은 완공됩니다'를 주제로 공예와 자연, 캠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달빛 아래, 완주에서의 하룻밤'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완주의 자연 속에서 전시와 체험, 공연, 캠핑을 함께 즐기며 공예와 지역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했다. 특히 50팀 규모의 캠핑 프로그램은 모집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2일간 진행된 야외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와 완주공예인협회 초대전, ESG 공예체험, 플라마켓, 버스킹 공연, 야외시네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완주와 전주를 연계한 XR버스 공예투어를 운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연계도 강화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지역화가 초창 강창구 개인전 개최

임실군립도서관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1층 로비 갤러리에서 지역화가 '강창구 작가의 아홉 번째 개인전: 빛'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임실군립도서관이 군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예술가의 서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을 전시하며 지역 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번 7월 전시는 강창구 작가의 아홉 번째 개인전으로, '탄생과 소멸'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보잘 것 없는 작은 사물의 시작과 끝에 담긴 생명력을 한지 고유의 질감과 빛을 활용해 섬세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임실군립도서관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층 로비 갤러리를 활용하여, 도서관 고유의 콘텐츠를 담아낸 '자체 기획전시'와 역량을 갖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외부 작가 초청 전시'를 병행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업중단 청소년 장학금 지원

무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박 모 군이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꿈키움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장학금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꿈키움 장학금'은 학업 중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도내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정된 박 군은 무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검정고시 학습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업 중단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전달된 100만 원의 장학금은 박 군이 향후 학업을 지속하는 등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사회' 실현 박차

민선9기 출범식에서 군정 비전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공식 선포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첫 현장 행정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현장을 찾았다.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본돌봄부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보다.

군에 따르면 전춘성 군수는 2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기본돌봄을 지원 받고 있는 안전면의 한 가정을 방문했다.

이날 전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점검했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진안형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

특히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기본돌봄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민선9기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진안=전철민 기자

장수군, 취약마을 2곳 개조 추진

번암면 원대론마을 계북면 어전마을 선정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번암면 원대론마을과 계북면 어전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이 취약한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장수군은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두 마을은 노후 주택과 공동시설 정비 수요가 크고 고령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군은 공모 준비 과정에서 마을별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현장평가에서는 노



후 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빈집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은 안전시설 정비와 생활·위생 시설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4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빈집 철거, 노후주택 집수리 등 주

거환경 개선사업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노후 담장 정비, 보행안전도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포함됐다.

주민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예산 1조 시대' 향한 디테일 행정

군민주권·군민우선 최우선

새로운 임실군정을 이끌 한득수 신임 군수가 내세운 '임실예산 1조원 시대 실현'이라는 큰 아젠다에, 군민 눈높이를 맞추는 '한득수표 디테일' 행정을 예고하면서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군수가 강조하는 임실군정의 운영의 틀은 "예산 1조원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포부 속에 '군민 주권의 군민 우선의 행정 실현'이라는 주민을 최우선하는 행정력을 보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군민주권의 군민우선 행정실현은 한 군수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담아내어 '손뼉 밀기'를 제거하겠다'는 디테일 행정으로 수렴되고 있다.

한득수표 디테일 행정은 취임사에서 도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감히 권위주

의를 벗어나는 탈권위주의 행정의 일환으로 읍면장실을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1층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역시 강력한 디테일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위한 1차 의료기반시설 확충을 약속하며, 군민들의 건강주권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 군수의 1호 결재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다. 그는 선거 기간내내 모든 군민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주창했고, 주민들은 그 약속에 크게 호응했다.

큰 호응에 답하듯, 그는 1호 결제로 올 하반기에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택했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소멸 대응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군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비춰지고 있다.

민선9기 임실군정의 방향과 목표는 그 윤곽을 드러냈다.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펙트럼 농촌경제, △삼남지역 문화관광, △삼남지역 교육복지, △군민우선 열린행정은 4대 군정방향이 그것이다.

"집권여당 군수로서 예산 1조원 시대 실현하겠다" 거대한 비전 속에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도 속도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이동장연수원 건립 사업 및 KTX임실역 정차처를 위한 시설 개량사업, 옥정호 순환도로 연결을 위해 1천억 규모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안성면 덕곡마을 '풍암관' 개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결실 공동급식·방문자센터 활용 주민 화합·소득 공간 기대

무주군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안성면 덕곡마을 '풍암관'을 2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풍암관(2024~2026, 총사업비 4억 원)은 주민화합과 소득 창출을 위한 시설로, 129.85㎡ 규모의 공간에 공용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공동체와 외부 방문자를 위한 다목적 공간, 공동급식소, 방문자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덕곡새마을회와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풍암관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핵심 결실이자 주도형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민선 9기 무주가 지향하는 기본사회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마을의 안녕과 바람 피해

방지를 기원하는 풍암제도 함께 올렸으며 이철희 덕곡마을 운영위원회 고문은 주민화합과 성공적인 개관의 공로로 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승희 덕곡마을 이장은 "그동안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열악하게 운영되던 공동급식실이 풍암관 내부로 들어와 너무 기쁘다"라며 "풍암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은 물론, 마을 축제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해져 마을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반려 편의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반려동물 유모차·이동가방 등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반려동물 친화 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에 반려동물 편의용품을 배치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임실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임실군청 △오수 반려누리(반려동물 지원센터)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봉어섬 △오수 율레카페 △

전북119안전체험관 등 총 6개소에 반려동물 편의용품 5종, 31개를 배치했다.

배치된 편의용품은 반려동물 유모차, 이동가방, 이동용 의자, 이동가방 등으로 각 시설의 이용 특성과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장소별로 품목을 달리 구성했다.

야외 관광지에는 이동시 활용도가 높은 반려동물 유모차, 이동가방, 슬링백을 비치하였으며, 반려누리에는 반려동물 유모차와 전용의자, 이동가방 등 다양한 편의용품을 갖춰 종합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수 율레카페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용의자와 펫툼(울타리)을 비치

하고, 군청과 119안전체험관에도 시설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 용품을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배치된 편의용품은 해당 시설 방문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춰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후 철저한 소독과 점검을 실시해 위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42회 '무주군민의장' 주인공 찾습니다!

15일까지 후보자추천받아

무주군이 제42회 '무주군민의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주군민의장'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군민을 선발해 무주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분회회장, △산업근로장, △공익장, △효행장, △환경장, △애향장 등 6개 분야 각 1명씩을 선발한다.

오는 1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으로, 지역 내 기관 및 사회단체, 학교 등 추천 기관에서는 추

천서와 공적조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은 8월 말까지 후보자별 공적 사실 및 현지 확인, 군민의장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을 통해 결정·공고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 진행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의회는 2일 제10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의회>

제10대 임실군의회 공식 출범

정일윤 의장·김중수 부의장 선출

임실군의회는 2일 제10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개원식 개최, 소총사 참배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제10대 의회의 전반기 공식 일정을 엄숙히 시작했다. 당일 오전 9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임실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정일윤 의원을, 부의장으로 김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운영행정위원회에 박선옥 의원, 농업복지위원회에 라시열 의원이 선출되며 전반기 원(院)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의장단 구성 직후 오전 11시에 개최된 개원식에는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선서, 의원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축사 등의 순

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군민의 권의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식을 마친 의원들은 임실군 성수면에 위치한 소총사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정일윤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임실군의회는 군민에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현장을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임실의 미래에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0대 장수군의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정상득 의원, 부의장에는 문재표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한선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임정권 의원을 선출하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직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제10대 장수군의회에 힘찬 출발을 함

께 축하했다.

정상득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장수군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군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장마철 대비 주요도로·배수로 정비 총력

임실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도로와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와 교통 불편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 주요도로와 배수구, 배수

파손 구간 보수,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장마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여산면, 독거노인에 '비 걱정 없는 여름' 선물**

익산시 여산면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여산면은 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여산한마음회(회장 정인생)가 협력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지붕 보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매년 장마철마다 지붕 누수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발굴하면서 이뤄졌다.

여산한마음회 회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대상자의 사정을 접하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누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회원들은 자체비 등 약 150만 원을 마련해 지붕 방수포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정인생 여산한마음회 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알게 됐고, 회원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부안면 행복나눔체 '행복냉장고' 운영**

고창군 부안면 행복나눔체(대표 윤명수)가 부안면 소재지 버스승강장에 '여름철 폭염대응 냉장고'를 설치하고 생수 무료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부안면 행복나눔체 회원들이 심시일만 모은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 냉장고를 확인하며 생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윤명수 부안면 행복나눔체 대표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힘을 모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살기 좋은 부안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시민 불편 해소 지역 활력 제고**

정읍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혁신을 이끈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과 개인 1명을 선발해 2일 표창했다.

이번 선발은 각 부서와 시 누리집, 시민 추천으로 접수된 총 16건의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사전 심사는 실무진 평가와 더불어 직원, 시민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다. 이어 올해 처음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에 2차 본선 심사를 맡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높였다.

엄격한 심사 결과 우수 2건과 장려 3건 등 총 5건이 최종 선정됐

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S) 등급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 등급에는 △장기 미사육 또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환경정책과 홍석조, 한혜원)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례(교통과 김현주, 최낙준)가 이름을 올렸다.

장려 등급은 △이용자를 배려한 진입로 개선으로 서부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건강증진과 최환혁, 주원경) △20년 묵은 악취 양계장을 반려동물 상점물(랜드마크)로 조성해 민원 해결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끈 사례(축산과 정승우) △현장



중심 행정으로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0(ZERO)을 향한 실무 동행(자원순환과 박수영, 박상민)이 꼽혔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전체 부서에 공유해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널리 퍼뜨릴 예정이다. 나아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전달**

**총 1,400만원 기부 7개 아동센터 개선 지원**

장수군은 한국마사회 장수목장(목장장 김진갑)이 장수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영순)에 후원금 1,4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7개 읍·면 지역아동센터에 각 200만원씩 지원됐으며, 노후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 등에 활용돼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문화

화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갑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목장장은 "이번 후원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순 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시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300세대에 반찬 나눔**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 소속 13개 읍·면 행복나눔봉사단 30여 명이 최근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조리실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밀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 등 소외계층 3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봉사단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불고기와 물김치를 직접 만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하며 건강 상태와 안부를 함께 살폈다.

나눔 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단 회원은 "덥고 힘들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나눔을 실천할수록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밀반찬을 만들고 직접 안부까지 살피주시는 행복나눔 봉사단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 동진면지사협, 냉감 이불나눔 사업 추진**

부안군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시원 등불 이불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12세대를 대상으로 1인용 냉감 이불세트 120여점을 전달하여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불을 전달하면서 '대면 안부 확인'을 함께 진행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보양식·혹서기 키트 지원**

김제시는 2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김제시지부(회장 장해식)와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2026년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및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키트 지원사업 '아구아~ 시원해라! 맛있는 여름 한 상, 시원한 여름 한 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행복꾸러미는 약 1,040만 원 상당으로 쿨매트와 보양식 밀키트(아구아·국수 세트)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김제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등 200세대에 전달됐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혹서기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군산 성산면 새마을부녀회 지역 어르신 점심 나눔 행사**

군산시 성산면 새마을부녀회는 2일 오성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와 정을 나누는 사랑의 점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홀로 지내거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답소를 나누는 등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성산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김장김치 나눔과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 no! 장바구니 ok!



세탁비닐 no!



일회용 수저, 포크 no!

〈一事一言〉



무주의 우주항공 비상(飛上), 이번만큼은 진짜 미래가 돼야 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제시한 '2050 미래비전'은 오랜 시간 농업과 관광의 도시로 인식돼 온 무주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차세대 우주항공 엔진과 첨단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북 산업지도의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현대로템이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무주 적상면 일대 약 70만㎡ 부지에 조성될 차세대 메탄엔진 생산기지는 단순한 공장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다. 메탄엔진은 재사용 발전기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주산업과 국방산업을 융합하는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에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전북이 이 분야에 의미 있는 거점을 확보한다면 산업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전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마음 한편에는 기대보다 의구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구상에서 전북이 사실상 소외됐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모습을 바

라보며 전북은 또다시 국가 전략산업에서 비켜선 것 아니냐는 허탈감이 지역 전반에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무주의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냐는 시선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해명이 아니라 성과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기업 투자가 현실이 되며, 일자리의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도민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지속성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은 경기와 시장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은 투자 발표를 치적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행정지원까지 빈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 투자계획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행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 정착이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기술자가 머물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주거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장은 무주에 있어도 사람은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오가는 구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생산시설만 남고 소비와 소득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

더 나아가 무주의 우주항공 산업은 전북 전체 산업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쟁력을 갖는다. 전주의 탄소소재 산업, 새만금의 미래모빌리티와 방산·드론 산업, 익산의 소재·부품 산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북형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될 때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전북도민들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는 감동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에서 경험한 상대적 박탈감은 말보다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무주의 우주항공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끝난다면 도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반대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결실을 맺는다면, 무주는 전북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실행이다. 무주의 우주항공 비상이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출발점으로 기록될지, 또 하나의 장밋 청사진으로 남을지는 지금부터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사설

이원택 지사1호 결재, '열린 행정'의 약속 끝까지 지켜야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원택 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내린 1호 결재는 간부회의 생중계 추진이었다.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정책 논의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매월 열리는 간부회의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보고 위주의 회의를 토론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도민주권과 열린 행정을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행정은 국민과 도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한다. 밀실에서 결정되고 결과만 통보되는 행정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논의의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전국 최초 수준의 간부회의 전 과정 공개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생중계 자체가 열린 행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토론이 이뤄지고, 정작 중요한 결정은 공개되지 않는 별도의 자리에서 내려진다면 생중계는 보여주기 행사에 그칠 뿐이다. 형식적인 토론이나 준비된 발언만 반복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투명성은 화면이 아니라 내용에서 증명돼야 한다.

민선 9기 전북도정 앞에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서 드러난 전북 소외, 지역경제 회복, SI와 미래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도민이 기대하는 것은 회의 장면이 아니라 정책의 성과다. 공개된 회의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고, 치열한 토론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민주권'이라는 약속도 완성된다.

첫 단추는 잘 끼웠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민선 9기 도정이 보여줄 것은 카메라 앞의 모습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책임행정이야 한다. 그것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오늘의시

정지의 힘 / 백무산

가치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 독자투고 |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힘, '병원 전 단계'의 기적



어느 날 갑자기, 평범했던 일상이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마주하는 현장은 언제나 긴박하고 냉혹합니다. 1분, 1초가 갈릴 때마다 환자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병원을 가야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생사를 가르는 진짜 승부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구급대원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4분이라는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누군가 옆에서 가슴을 압박하고 숨을 불어넣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뇌와 심장을 다음 치료 단계까지 안전하게 이어주는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구급대원의 역할은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리듬을 분석하고, 필요한 약물을 영상의료지도를 통해 투여하며, 고도화된 전문심장소생술을 수행합니다. 응급의학의사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처치를 제공합니다. 현장에서의 처치가 정교해질수록 환자가 다시 눈을 뜰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항상 '현장에 있던 당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구급대원도, 아무리 좋은 기술도 여러분의 초기 대응 없이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거창한 기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따뜻한 마음입니다.

병원 전 단계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소중한 생명 안전방입니다.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은 특별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용기 있는 손길과 신속한 대응이 모여,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방은 그 기적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강휘주

시인 약력 : 1955년 경북 영천 출생. 1974년에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노동자로서 입사한 뒤 1984년 민중시 제1집에 '지옥선'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노동해방문학' 편집위원을 지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당했다. 시인 박노해 등과 함께 1980년대 노동을 주제로 시를 썼다.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담고'는 1988년 울산 현대중공업 대파업 투쟁을 완결된 장시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

정읍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 4대 핵심 분야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특화 창작물(콘텐츠) 개발,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시각예술 전시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다.

<편집자 주>

동네방네 연희한마당



정읍근대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무성서원



정읍시립농악단 상설공연



정읍시 '소외 없는 문화 복지' 다진다

문화누리카드·청년예술패스 지원 역대 최대... 문화사각지대 해소 유희공간 부활부터 시립예술단 상설공연까지 심 없는 '문화 향유'

◆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 실효성 높은 문화 복지

시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문화를 누리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넓혔다. 올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15만원으로 상향했다.

단순히 지원 금액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했다. 실질적인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사용액이 3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자동 재충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특히 사용 범위를 일반 대중 영화 관람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지원 연령 또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0세까지로 넓혀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 유희 공간과 문화유산의 재탄생...정읍형 문화예술 교육

지역 고유의 역사적 자산과 낡은 건물을 활용한 문화 교육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정읍근대역사관은 지난 4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정읍의 근대 역사를 쉽게 풀어내는 체험 교육을 운영 중이다.

과거 농협 양곡 창고로 쓰이던 유희 공간을 문화 시설로 새단장한 '전북 아트플랫폼'의 홍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아우르는 매체 예술(미디어 아트) 교육과 학생 체험 과정을 앞두

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기초 이론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실제 창작물 제작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 도심부터 외곽까지 직접 찾아가는...시립예술단의 활약

시립예술단은 다채로운 현장 공연을 기획하며 시민들과의 문화적 접점을 넓히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월간 상설 공연'에서는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이 매월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예술을 선보이며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 창작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 소외 지역의 벽을 허무는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머무는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농악단의 '동네방네 연희 한마당'은 지난 3월까지 총 17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 매체 예술과 고전 서화의 만남...풍성한 시각 예술 기획전

정읍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다채로운 기획 전시가 쉼 없이 이어진다. 시립미술관은 거대 고풍 인형을 주제로 한 매체 예술 기획전 '버라이어티 베어'의 두 번째 계절 전시인 '봄, SPRING'을 지난 5월 24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정읍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다채로운 기획 전시가 쉼 없이 이어진다.

정읍시립미술관은 거대 고풍 인형을 주제로 한 매체 예술 기획전 '버라이어티 베어'의 두 번째 계절 전시인 '봄, SPRING'을 지난 5월 24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미술 거장들이 영감을 얻고 사랑했던 특별한 장소들을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도 예고했다.

시립박물관은 정읍이 배출한 위대한 서화가 석지 채용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세 번째 연속 기획 전시 '꽃과 새, 상징을 담다'를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정읍 출신 서예가 동호 김석근을 조명하는 특별전과 밤하늘의 '달'을 무늬로 품고 있는 고고학 유물 기획전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 실록 보존의 역사부터 대동의 장까지...굽직하 하반기 축제 예고

시는 상반기에 거둔 문화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를 연달아 개최한다. 가장 먼저 오는 6월에는 임진왜란의 병화 속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 지켜낸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는 '이안 기념행사'를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치를 예정이다.

이어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총출동해 화합을 다지는 '정읍 예술제'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축제를 꾸미는 '문화로 대동' 행사가 열린다. 찬란한 백제 가요의 명맥을 잇는 정읍의 대표 상징 축제인 '정읍사 문화제' 등도 연이어 개최 일정을 잡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촘촘하게 기획했다"며 "다채로운 문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